

## 적십자, 전국 적십자병원 공공의료본부 간담회 개최

신민수 기자 kys8252@naver.com

등록 2025.03.04 13:44:23



▲ 2025년 적십자병원 공공의료본부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의료원은 2월 28일 서울적십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적십자병원 공공의료본부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7개 적십자병원(서울·인천·상주·통영·거창·영주적십자병원 및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공공의료본부 공공의료사업팀, 지역책임의료팀, 진료협력실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각 병원 공공의료본부의 2024년 사업실적과 2025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공공의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부서별로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의료사업팀에서는 2025년 삼성 희망진료센터 운영 방향을, 지역책임의료팀에서는 책임의료기관 사업지침 변화 교육을 그리고 진료협력실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방안 교육 등, 각 부서별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1905년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대한국적십자병원을 개원함으로써 시작된 대한적십자사가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120주년 기념 공공의료본부 행사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한원곤 의료원장은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전공의 공백 등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각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를 보다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적십자병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이자 지역책임의료기관인 6개 병원과 권역재활병원 1개소 운영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희망진료센터, 누구나진료센터를 통해 소외된 곳을 돌보기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